

‘광주 관문’ 송정역 일대 품격 높인다

광산구, 230억 들여 경관개선
자전거 도로·전선지중화 등
2024년까지 6개 사업 추진



‘광주의 핵심 관문’ 중 하나인 광산구 소재 광주송정역 인근 상무대로 전경.

‘광주의 핵심 관문’인 광주 송정역 일대가 확 달라진다.

9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광주송정역 일대를 대상으로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송정역은 KTX 개통 이후 하루 평균 이용객만 2만3000여명에 이를 정도로 명실상부한 광주의 대표 관문으로 부상했으나, 기반시설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송정역부터 극락교까지 이어지는 상무대로 역시 마찬가지다. 광주송정역과 광주공항, 광주시청 등 광주의 핵심 거점을 연결하는 중요 길목임에도 전체적으로 노후화되고, 시설도 빈약하다.

광산구는 이번 경관개선 사업을 광주송정역 일원과 주요 길목을 새롭게 탈바꿈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다.

광산구는 지속적으로 광주시를 설득한 끝에 시비 153억 원 등 총 23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다.

경관개선사업은 이달부터 2024년까지 진행된다. ▲교통편의시설 정비 ▲자전거 인프라 구축 ▲전선지중화 ▲보도정비 ▲송정고가교 경관 ▲가로화단 조성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지역은 광주송정역부터 극락교까지

4.7km 구간이다.

세부적으로 자전거 보관대 27개, 노후 버스승장 9곳을 교체하고, 광주지하철 공항역부터 극락교까지 자전거 전용도로 1.3km를 신설한다. 또 시민 쉼터도 3곳 조성한다.

해당 구간은 광주 자전거 도로의 ‘사통팔달’로 좁혀지지만, 도로 상태가 불량하고, 폭도 좁아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광산구는 정비 사업을 통해 자전거 길을 넓히고, 동시에 보행로를 확보하는 등 안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방침이다.

걷기 좋은 도시 구현을 위해 1, 2단계로 나눠 보도를 정비하고, 곳곳에 가로 화단도 조성한다.

또 한국전력공사, 세종텔레콤 등 6개 통신사업자와 협력해 신덕지하차도부터 송정IC까지 통신, 전기 설비도 지중화한다. 시비 84억 원과 더불어 한전, 통신사업자가 77억 원의 사업비를 더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도심지역 및 주택가 내 전선으로 미관 저해와 자연재해 시 사고 위험 등의 우려가 컸던 만큼 사업 추진에 따른 시민의 만족도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수완·운남·첨단을 연결하는 송정고가교의 디자인과 경관 등을 개선해 새로운 야간 명소도 조성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상무대로는 광주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구간”이라며 “광주 관문에 걸맞은 보행 안전과 도심 미관 향상 등 품격 높은 도심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공동체, 우크라이나 지원 두 팔 걷었다

평화 기원 성금 모금 전개
1차 72개 단체 1억여 원 기부

광주 광산구와 지역공동체가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섰다.

김삼호 광산구청장과 25개 광산구 사회기관단체 대표자들은 지난 4일 오후 고려인마을 미디어센터 1층에서 ‘우크라이나 평화 성금’ 1억여 원을 우크라이나 주민 대표 리 안드레이, 최 아나스타시야 씨와 사단법인 고려인마을에 전달했다.<사진> 성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생한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 피난민을 돕기 위해 광산구 72개 단체·기관이 마련했다.

기부금은 고려인마을을 통해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광산구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주민 대표와 긴급 면담을 갖

고 지역사회 역량을 총동원해 인도적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광산구는 이번 1차 성금을 시작으로 전쟁 중단과 우크라이나 평화를 기원하는 성금 모금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지에 물품이 들어가기 힘든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현금 모금을 진행하되 향후 상황에 따라 의약품, 식료품, 생필품 등 지원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광산구에는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 동포를 비롯한 260여 명의 우크라이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가족 생사에 대한 걱정, 불안을 겪고 있는 이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원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기부와 후원이 줄을 잇고 있다”며 “지역공동체와 함께 다양한 지원과 연대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반려식물 돌보는 재미 흠뻑”...광산구 동곡동 어르신들 ‘웃음꽃’

‘마을안 반반한 행복’ 사업
고립감 덜어주고 정서 안정

“요 앞이 처음엔 요만 했는데, 벌써 내 손바닥만 해. 때갈도 고와. 보고 있으면 절로 웃음이 난단께.”

광주시 광산구 동곡동 어르신들은 요즘 산세베리아 화분 보는 재미에 푹 빠졌다.

무력무력 자라는 푸른 잎을 보고 있으면 심심할 틈이 없다며 싱글벙글이다.

어르신들의 ‘반려식물’ 키우기는 광산구 동곡동의 ‘마을안(安) 반반한(반려식물에 반한) 행복’ 사업으로 시작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르신들의 고립감과 외로움을 덜어주고자 진행한 사업이다.

동곡동은 지난해 9월부터 관내 어르신 73명에게 산세베리아처럼 방안에서 기를 수 있는 화분을 제공했다.

생애 첫 반려식물 키우기에 도전한 어르신들은 화분을 방 안에 두고 물을 주고, 정성스레 가꾸면서 자연스럽게 삶의 활기도 되찾았다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동곡동은 지역 주민과 돌봄 활동가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고 정기적으로 어르신 가



광주시 광산구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최근 반려식물을 기르는 동곡동 소재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건강 등을 살피고 있다.

정을 방문해 안부를 살폈는데, 그때마다 반려식물이 대화의 중심이 됐다고 한다.

동곡동은 이 밖에도 광주시립요양병원이 지원한 치매예방교구를 활용한 종이접기, 색칠하기 등 다양한 어르신 행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동곡동은 올해도 어르신의 정서 안정과 치매에

방을 위해 반려식물 키우기 등 다양한 돌봄 사업을 진행하거나 준비중이다.

동곡동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고독사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어르신,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이야기꽃도서관, ‘문화·예술 지원’ 선정

문체부 ‘문화가 있는 날’ 공모 선정

광주 광산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2년 도서관·박물관·미술관 1관 1단’, ‘공공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운영기관 공모에 이야기꽃도서관이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도서관·박물관·미술관 ‘1관 1단’ 사업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을 거점으로,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산구 1곳을 포함해 광주에서는 2곳이 선정됐다.

2년 연속 공모에 선정된 이야기꽃도서관은 올해 전문 그림책 작가와 함께하는 ‘창작 그림책 만들기’ 심화 과정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완성된 그림책은 도서관 내 전시 및 홍보에 활용하고, 주변 교육시설과 소외 지역으로 찾아가 직접 제작한 그림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공공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은 지역문화 예술 접근성 향상과 이용률 제고를 위해 문화예술 전문가 공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에서는 이야기꽃도서관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야기꽃도서관은 공모 선정에 따라 오는 6월 조성 예정인 주민 참여형 전시 공간 개관 행사와



연계한 문화예술 공연을 준비해 지역 주민이 예술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및 예술 창작의 기회를 제공해 이야기꽃도서관이 단순한 독서공간을 넘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이야기꽃도서관 (062-960-6812, 68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